

사무엘하 21-24장의 위치와 기능

김진수*

1. 시작하는 말

사무엘하 21-24장은 내용상으로는 연대기적으로 이전 문맥과 격리된 문학적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무엘하 20장까지는 다윗의 궁정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이 연대기적 순서 따라 기록되고 있는 반면 21장 이후에서는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이 깨어진다. 이야기는 앞을 향해 더 나아가지 않고 회고적이 되며 사울과 블레셋의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 더욱이 21-24장에 나타나는 글들 상호 간에도 문학적 양식이나 주제에서 통일성을 찾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의 비평학자들은 주로 사무엘하 21-24장을 사무엘서와 무관한 후대의 삽입으로 보았다.¹⁾ 특히 로스트는 사무엘하 9장-열왕기상 2장을 다윗의 왕위 계승의 문제를 다루는 독립된 전승으로 보고 사무엘하 21-24장은 서로 다른 여러 자료들에 속하는 부록이라고 하였다.²⁾ 로스트의 견해는 마틴 노트와 폰라드를 비롯한 많은 후대의

* 백석대학교 교수, 구약학

1) 퀘넨은 사무엘하 21-24장에 ‘아무런 질서’(geenerlei orde)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고[A. Kuenen, *Historisch-kritisch onderzoek naar het ontstaan en de verzameling van de boeken des ouden verbonds*, Eerste deel (Leiden: Akademische Boekhandel, 1861), 247.] 클로스트만은 한걸음 더 나아가 사무엘하 21-24장을 ‘성유물들’(Reliquien)에 비유하였다[A. Klostermann, *Die Bücher Samuelis und der Könige* (Nördlingen: C. H. Beck, 1887), XXIII]. 유대인 학자 세갈은 사무엘하 21-24장의 문학적 배열이 ‘비합리적’(irrational)이라 말하기도 하였다[H. H. Segal, “The Composition of the Books of Samuel,” *JQR* 56 (1965-1966), 36.]

학자들에게 지지를 얻었다.³⁾ 종종 사무엘하 21-24장이 중심에 두 개의 시, 그 둘레에 두 개의 목록, 양쪽 가장자리에 두 개의 내러티브를 가진 교차 구조(c, b, a, a', b', c')라고 지적되었으나 사무엘하 21-24장의 위치와 기능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⁴⁾

그러나 성경 본문의 최종적인 형태를 증시하는 주해 방법론이 등장하면서 사무엘하 21-24장은 사무엘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학자들은 이제 사무엘하 21-24장이 사무엘서의 ‘결론부’를 형성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⁵⁾ 사무엘서의 이해를 위한 ‘해석학적 지침’이라고 여기기도 한다.⁶⁾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하 21-24장이 어떻게 사무엘서와 연결되어 그것을 결론으로 이끄는가 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한편으로 사무엘하 21-24장이 사무엘하 3-20장과 긴밀히

2) L. Rost, *Die Überlieferung von der Thronfolge Davids* (Stuttgart: Kohlhammer, 1926), 99을 보라.

3) 특히 노트는 사무엘하 21-24장을 ‘신명기 역사서’가 각각의 책들로 나누어진 후 사무엘서 말미에 덧붙여진 ‘첨가물 덩어리’(ein Konglomerat von Zusätzen)로 보았다.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Tübingen: Max Niemeyer, 1957²), 62을 보라. Cf. G. von Rad, “Der Anfang der Geschichtsschreibung im alten Israel,” ders.,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TB 8 (München: Chr. Kaiser, 1971), 159-160; G. Hentschel, “Die Samuelbücher,” E. Zenger, Hg.,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KST 1,1 (Stuttgart: Kohlhammer 2004⁵), 233.

4) 현대 문예적 접근법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인 포클만도 사무엘하 21-24장의 교차 구조는 더는 해석상의 중요성을 갖지 않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J. P. Fokkelmann, *Narrative Arts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III, Throne and City*, SSN 27 (Assen: Van Gorcum, 1990), 13.

5) 대표적인 학자들을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W. Brueggemann, “2 Samuel 21-24. An appendix or Deconstruction?” *CBQ* 50 (1988), 383-397; R. Polzin, *David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Part Three, 2 Samue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H. H. Klement, *II Samuel 21-24. Context, Structure and Meaning in the Samuel Conclusion*, EUS 682 (Frankfurt a.M.: Peter Lang, 2000).

6)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London: SCM Press, 1978), 272을 보라.

연결되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가 하면) 다른 한편 그것(삼하 21-24장)은 사무엘하 5-8장과 대응 관계를 갖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회가 지파 중심적 부족 연맹 체제에서 중앙 집권적 왕정 체제로 나아간 것이 잘못된 발전임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도 한다.⁸⁾ 이처럼 사무엘하 21-24장을 사무엘서의 구성적 요소로 여기는 학자들조차 그것의 위치와 기능에 관한한 일치된 견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이 주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사무엘하 21-24장의 여러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결합하여 사무엘서 전체의 결미를 이루는지 살피고자 한다. 우리의 과제를 위해서 우선 사무엘하 21-24장의 여러 본문들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 후에 비로소 각각의 본문들이 사무엘서 말미와 사무엘서 전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이 취하는 접근 방식은 본문의 성장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 대신 최종 본문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또한 본문의 문학적 특성(교차 대칭 구조)을 살려 서로 짝을 이루는

- 7) 이 견해는 사울의 일곱 후손의 처형을 다루는 사무엘하 21:1-14은 아브넬과 이스 보셋의 죽음을 다루는 사무엘하 3:1-5:12와 상응하고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의 인구 조사 이야기는 사무엘하 9-20장과 상응한다고 한다. 또한 사무엘하 21:15-22과 23:8-39에 나타나는 다윗의 용사들의 일화는 사무엘하 5:17-25에 나오는 다윗과 블레셋 간의 전쟁 기사와 사무엘하 8:1-14에 나오는 다윗의 전승기록과 각각 연결된다고 한다. 나아가서 사무엘하 22장과 23:1-7에 나타나는 다윗의 시는 사무엘하 6-7장에 나타나는 법케 이야기 및 나단의 신탁 기사와 연결된다고 본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Klement, *2 Samuel 21-24*, 69-85을 보라.
- 8) 플라나간은 사무엘하 5-8장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다윗 왕권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엮어진 글로 보았다(J. W. Flanagan, "Social Transformation and Ritual in 2 Samuel 6," C. L. Meyes and M. OConnor, eds.,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FS D. N. Freedman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3), 361-371.). 이 견해를 토대로 브루그만은 사무엘하 21-24장이 사무엘하 5-8장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다윗 왕권의 성립을 비판하고 해체한다고 주장한다(Brueggemann, "2 Samuel 21-24," 383-397.).

본문들을 같이 다루고자 한다.

2. 내러티브: 사무엘하 21:1-14 대 사무엘하 24장

21:1-14과 24장은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본문은 첫째,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고 있고, 둘째, 왕의 죄로 야기된 국가 재난을 중심 이슈로 하고 있으며, 셋째, 내러티브 양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21:1-14과 24장은 내용적인 측면이나 문학적 양식의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두 본문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24:1(פָּרַח)과 두 본문이 유사한 표현(פָּרַח [הַיָּמִים] וַיִּעָתֶר אֱלֹהִים)으로 끝난다는 사실(21:14c; 24:25c)에서도 확인된다.

2.1. 사무엘하 21:1-14

사무엘하 21:1-14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 관계에 대한 사울과 다윗의 상반된 태도와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 사울은 여호수아 시대 이래로 존재하였던 기브온과의 언약 관계를 깨고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고자 하였다.⁹⁾ 이것은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

9) 브루그만은 본문 외에 구약의 어느 곳도 사울이 기브온을 친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oracle)은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한다[W.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337.]. 프롤로브와 오렐은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탁을 사무엘하 24:1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S. Frolov and V. Orel, "Rizpah on the Rock, Notes on 2 Sam. 21:1-14," *BeO* 37 (1995), 152.]. 그러나 비록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울과 기브온 간의 적대 관계를 암시하는 성경 본문이 없지 않다. 헤르츠베르그가 지적한 것처럼 사울이 기브온의 인접 지역인 농의 제사장들을

님의 이름을 짓밟는 행위였을 뿐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을 허무는 일이었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방치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기근을 보내셨고 그 결과 사울의 일곱 후손이 속죄의 제물로 처형당하게 되었다.¹⁰⁾ 이와 같이 21:1-14은 사울이 하나님께 불충하여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왔고 자신의 집안을 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다윗은 언약의 관계에 충성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자신의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우선 그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으며(1절) 구약의 제의적 규례 중의 하나인 속죄를 통하여 기브온과의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3절). 속죄의 방식에 있어서도 다윗은 왕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언약의 파트너인 기브온 사람들의 의견을 십분 존중하여 결정하였다. 특히 다윗과 기브온 사람 간의 대화가 나타나는 3-6절은 마치 재판에서의 심리 과정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사울의 문제를 공정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¹¹⁾

살육한 사건은 사울과 기브온 사이의 긴장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W. Hertzberg, *Die Samuelbücher*, ATD 1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³), 315]. 브루노[A. Bruno, *Gibeon*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andlung, 1923), 75.]와 투른[K. van der Toorn, *Family Religion in Babylonia, Syria and Israel.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Forms of Religious Life*, SHCANE 7 (Leiden: E. J. Brill, 1996), 273-277.]은 심지어 기브온 사람들과 뉘의 제사장들을 동일시하기까지 한다.

- 10) 왕의 범죄로 온 백성들이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은 왕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특별한 연대 관계 때문일 것이다. Cf. J. S. Kaminsky, *Corporate Responsibility*, JSOTS 19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52: "But just as the king was responsible for the sins of the general populace, the general populace also became implicated in the sins of the monarch. The king was no ordinary individual but was God's vicar on earth, the single most important mediator between the people and their God."
- 11) 사울의 후손이 처형된 것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에서 널리 행해졌던 '언약의 저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Cf. A. Malamat, "Doctrines of Causality in Hittite and Biblical Historiography: A Parallel," *VT* 5 (1955), 1-12; F. C.

특히 10-14절은 다윗이 처형당한 자들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까지 다시 장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사울과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후 이미 길르앗 야베스 땅에 매장되어 있던 터였다(삼상 31: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직접 길르앗으로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매어 올려 베냐민 땅 가죽 묘지에 장례를 치러 준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 집안에 대해 최대한 관용과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서 다윗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곧 사울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집에서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한다(삼상 24:16-22).

이상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사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때 공과 의(קָדוֹשׁ וְצַדִּיק)를 시행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충실하게 지켰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다윗의 모습이 7절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여호와의 맹세)을 지키고자 르비보셋을 처형하도록 넘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다윗은 국가적인 재난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사울의 일곱 남자 후손의 처형으로 사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다윗 왕가를 더욱 굳게 세우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다윗이 모든 권위로서 왕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14절에서 강조되고 있다(“왕의 명대로 행하니라.”).

이처럼 21:1-14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다. 언약 관계에 대한 두 왕의 상반된 태도는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불순종과 직결된다. 즉, 사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왕권을 박탈당하고 집안을 파멸로 이끈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켜 왕권을 굳게 세우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Fensham, “The Treaty between Israel and the Gibeonites,” *BA* 27 (1964), 96-100;
R. Polzin, “HWQY and Covenantal Institutions in Early Israel,” *HTR* 62 (1969), 227-240.

수 있는 결론은 21:1-14이 ‘사울가의 몰락과 이에 따른 다윗 왕권의 견고화’를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¹²⁾

21:1-14의 중심 내용이 ‘사울가의 몰락과 이에 따른 다윗 왕권의 견고화’라고 한다면 이 본문이 사무엘서 내에서 현재의 자리에 놓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의 자리에서 그것이 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무엘하 9-20장과 사무엘하 21:1-14 사이에는 연대기적으로나 내용상으로는 단절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사무엘 연구자들은 사무엘하 9-20장과 열왕기상 1-2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그 사이에 있는 사무엘하 21-24장을 이차적인 삽입(부록)으로 다룬다. 이들의 견해가 옳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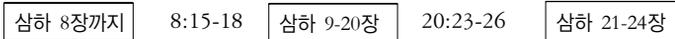
우선 사무엘하 9-20장이 독립된 단락을 이루고 있다는 견해는 옳다. 이것은 사무엘하 9-20장을 둘러싸고 있는 ‘인명 목록’(삼하 8:15-18; 20:23-26)에서 분명해진다.¹³⁾ 이러한 문학적 구성을 통해 저자가 말하

12) 같은 견해를 갖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Hertzberg, *Die Samuelbücher*, 317; Childs, *Introduction*, 274; M.-T. Wacker, “Rizpa oder. Durch Trauer-Arbeit zur Verzöhnung. Anmerkung zu 2 Sam 21,1-14,” K. Kieskow & T. Meurerer, Hg., *Textarbeit. Studien zu Texten und ihrer Rezeption aus dem Alten Testament und der Umwelt Israels, Fs. P. Weimar*, AOAT 29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3), 556.

13) 아이스펠트는 사무엘하 20:23-26이 다윗 역사의 결미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So kann auch 20, 23-26 von dem Verfasser des 2 Sam 9-20,22; 1 Kön 1. 2 vorliegenden Erzählungswerkes oder von dem Verfasser eines der deiden vielleicht vereinten Fäden hierher gestellt sein, um den Abschluß der Geschichte Davids zu markieren,” O. Eißfeldt, *Die Komposition der Samuelbücher* (Leipzig: J. C. Hinrichs’sche Buchhandlung, 1931), 47; 윌터스는 사무엘서에 여러 차례 나타나는 인명 목록이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석학적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The office notes are not chronological markers. They are hermeneutic: they interpret. Their purpose is to convey editorial viewpoint by signaling new beginnings in the narrative - fresh turns of events that are theologically important to the writer,” O. Eißfeldt, *Die Komposition der Samuelbücher* (Leipzig: J. C. Hinrichs’sche Buchhandlung, 1931), 47.

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무엘하 21장 이후의 내용과 사무엘하 9-20장의 내용이 서로 구분되고 사무엘하 8장까지의 내용과 사무엘하 9-20장의 내용도 서로 구분된다. 이를 도식화 해보자.

〈표 1〉 사무엘하의 문학적 구성



이와 같은 구분을 고려한다면 사무엘하 21장 이후의 내용과 사무엘하 9-20장이 연대적으로나 내용상으로 단절을 보인다 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오히려 이 단절은 저자가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우리는 21:1-14의 중심 내용이 ‘사울가의 몰락과 이에 따른 다윗 왕권의 견고화’라는 것을 보았다. 놀랍게도 이 내용은 사울 왕가의 몰락 과정과 다윗 왕권의 설립과 견고화 과정을 담고 있는 사무엘상 15장부터 사무엘하 8장까지 내용과 통한다.¹⁴⁾ 여기서 밝혀지는 사실은 사무엘상 15장(또는 사무엘상 8장)¹⁵⁾-사무엘하 8장의 내용이 사무엘하

14) 로스트 이후 사무엘상 15장(또는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또는 6, 7, 8장)은 ‘다윗의 왕위 등극사’(History of David’s Rise=HDR)라는 독립된 문학적 전승을 담고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HDR의 범위에 대하여 학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때때로 독립된 전승으로서의 HDR의 존재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Cf. R. P. Gordon, *1 & 2 Samu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61-63.

15) 사울의 몰락이 사무엘상 15장에서 본격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다윗 왕권의 확립과 견고화라는 주제가 사무엘상 15장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트리히는 사울 왕의 전체 역사가 ‘다윗의 별’(Davids Stern)을 더욱 빛나게 하는 기능을 하기에 사무엘상 9장 이후부터 다윗의 등극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W. Dietrich, *David, Saul und die Propheten. Das Verhältnis von Religion und Politik nach den prophetischen Überlieferungen vom frühesten Königtum in Israel*, BWANT 122 (Stuttgart: Kohlhammer, 1992³), 65.]. 그러나 필자가 여기에

21:1-14의 내용과 서로 상응하며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이 단순히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다소 내용상의 발전이 있다. 사무엘하 21:1-14은 사울 가문의 최종적 몰락을 인치고 있다는 점에서 다윗과 사울간의 관계에 중지부를 찍고 있다.

2.2.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행한 인구 조사와 그 결과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지 밝혀져 있지 않다. 더욱 난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 인구 조사를 빌미로 이스라엘에 진노를 쏟아 부으셨는가 하는 것이다.

위의 여러 가지 난제의 답을 찾기 위해 다윗이 행한 인구 조사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구약이 인구 조사 자체를 금지하거나 죄악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¹⁶⁾ 출애굽기 30:11-16은 인구 조사가 때때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윗의 인구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 조사 자체가 아니라 인구 조사의 방식이나 동기이다. 3절에 나타나는

는 왕권의 문제가 처음 제기되는 사무엘상 8장부터 모든 이야기가 사무엘하 8:15(“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의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시행하였다”)을 지향하고 있기에 사무엘상 8장-사무엘하 8장을 ‘다윗 왕권의 확립과 견고화’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다.

- 16) 노이펠트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후 재앙을 만난 것은 우연의 일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E. Neufeld, “The Sins of the Census,” *Jud* 43 (1994), 198.].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구약의 여러 곳에 재앙을 만나지 않고 인구 조사가 행해진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삼상 11:8; 13:15; 15:4; 삼하 18:1 등). 그러나 예의 본문들은 엄격한 의미의 인구 조사가 아닌 적들과 싸우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수효를 계수하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요압의 충고를 고려할 때 다윗은 백성의 수효의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 같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동기가 잘못되면 방식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쉐커(A. Schenker)가 설명하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인구 조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인 속전을 내는 일을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cf. 출 30:12).¹⁷⁾ 쉐커는 인구 조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속전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경우 다윗이 속전의 규례를 소홀히 한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찬탈한 것과 같은 일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임에 분명하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에 진노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을지라도 다윗이 만일 규례대로 인구 조사를 하였더라면 범죄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재앙을 당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다윗이 모든 규례를 무시한 채 인구 조사를 하였다는 데 있다. 즉, 다윗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¹⁸⁾ 이렇게 볼 경우 24장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다윗의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왕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윗은 열방과 같이 권력 중심의 세속적 왕권을 지향하고 있었다.¹⁹⁾

17) A. Schenker, *Der Mächtige im Schmelzofen des Mitleids. Eine Interpretation von 2 Sam 24*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1982). 다른 한편 맥카터는 인구 조사를 받는 자들은 의무적으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고(cf. 신 23:9-14; 수 3:5) 다윗의 경우 정결 예식을 무시한 채 인구 조사를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P. K. McCarter, *II Samuel*, AB 9 (New York: Doubleday, 1984), 512-514.].

18) 24:9에 나오는 ‘칼을 빼는 자’라는 표현은 다윗의 인구 조사가 군사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19) Cf. W. Dietrich, *Von David zu den Deuteronomisten. Studien zu den*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매우 엄하게 다루셨다. 그의 왕권이 거의 몰락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지리적으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숫자적으로 70,000명의 백성이 죽었다고 하는 것(삼하 24:15)은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의 왕권의 위기관 안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권이 시행되지 않고 남용되게 될 때 그 왕권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윗 왕권에는 사울의 왕권과 비교할 때 특이한 것이 있다. 21:1-14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울의 경우 왕권을 남용하여 왕권이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 24:16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번제단을 쌓게 하셔서 다윗 왕과 그의 백성에게 항구적인 속죄의 길을 열어 주셨다.²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다윗이 여부스 사람에게서 취하여 자신의 왕도로 삼은 곳이다(삼하 5:6-10).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시자 긍휼히 여기시고 재앙을 거두셨다는 것은 곧 다윗 왕가와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긍휼히 보셨다는 의미이다. 다윗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the Davidic covenant)을 기억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

Geschichtsüberlieferungen des Alten Testaments, BWANT 8 (Stuttgart: Kohlhammer, 2002), 141: “Kein Herrscher-auch nicht David-darf nicht das Gottesvolk als Verfügungsmasse für seine eigenen militärischen und politischen Pläne betrachten und behandeln! David setzt sich über die Grenzen der ihm von Gott geliehenen Macht hinweg.”

20) Cf. Schenker, *Der Mächtige*, 15. “So versteht Israel, dass der Jerusalemer Altar ein bleibendes Pfand der Versöhnlichkeit JHWHs ist, nicht nur in diesem einen Fall der Peststillung, sondern in allen künftig sich ereignenden ähnlichen Unheilschlägen.”

서 다윗 왕가와 그의 나라를 공홀히 여기신 것은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과 불기분의 관계 속에 있다(cf. 삼하 23:5).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으로 다윗 왕가와 그의 나라를 보존하셨다.

이와 같이 21:1-14과 마찬가지로 24장은 왕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두 본문은 강조하는 것에 차이를 보인다. 21:1-14은 다윗과 사울을 여호와의 맹세라는 측면에서 비교하여 사울 왕가의 최종적 몰락과 다윗 왕권의 견고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4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왕권을 남용하여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홀 때문에 왕권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요약하면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왕권의 위기와 그 해결’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위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의 중심 주제가 ‘다윗 왕권의 위기와 그 해결’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놀랍게도 이것은 사무엘하 9-20장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사무엘하 24장과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9-20장 또한 다윗이 왕권을 남용하여 왕권을 잃을 지경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왕권을 회복한 내용을 담고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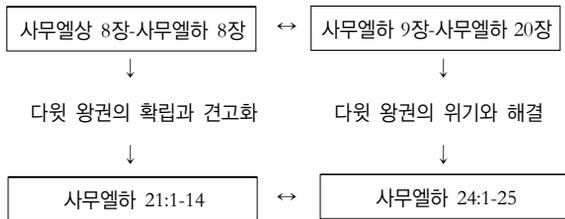
물론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르비보셋을 돌보아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무엘하 9-20장의 문맥에서 9장의 내용은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

21) 사무엘하 9-20장에 대해 폰라드(von Rad, “Geschichtsschreibung,” 186.)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Das innere Thema des Ganzen war doch der davidische Thron; am Anfang war die göttliche Verheißung für den ewigen Bestand dieses Thrones mitgeteilt, dann sah man die furchtbaren Wirrisse, in die er hineingezogen wurde, bis sich am Ende der von Gott ersehene Erbe der Krone einstellte...War es aber das Anliegen unseres Historikers, die Bewahrung des davidischen Thrones durch Gott durch alle Wirren der Geschichte darzustellen, so war sein Thema in theologischer Hinsicht ein messianisches.” Cf. H. J. Stoebe, *Das zweite Buch Samuelis*, KAT 8/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4), 35; C. J. Goslinga, *Het Eerste Boek Samuel*, COT (Kampen: Kok, 1968), 23.

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후손 중 하나인 므비보셋을 자신의 식객으로 받아들인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9장은 사울가를 향한 다윗의 자비를 묘사하는 차원을 넘어 다윗 왕권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난관을 예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므비보셋은 후에 다윗의 적대 세력으로 언급되기도 한다(삼하 16:3).

이제 사무엘하 24장이 사무엘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이 분명해졌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왕권의 위기와 해결’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무엘하 9-20장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24장이 사무엘서의 끝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언약적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긍휼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항구적인 속죄의 방편 속에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종합하면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 9-20장의 결론부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사무엘서의 구조를 도식화해 보자.

〈표 2〉 사무엘서의 구조



3. 리스트: 사무엘하 21:15-22 대 사무엘하 23:8-39

21:15-22와 23:8-39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과 군사적 업적들을

담고 있는 에피소드나 리스트 형식의 본문이다.

3.1. 사무엘하 21:15-22

이 본문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블레셋을 물리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윗이 매우 무력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둘째, 블레셋 사람들 중 ‘장대한’ 자들만 소개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보자. 놀랍게도 본문에서 다윗은 무력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피곤하여짐(15절), 죽을 위기에 놓임(16절)). 이와 같은 모습은 사무엘서의 다른 곳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거기에 묘사된 다윗은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의 적군들과 용맹스럽게 싸우고 언제나 승리를 거두는 용사의 모습이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가 하면(삼상 17장) 이곳 저곳을 다니며 약탈을 일삼는 아말렉 군대를 정벌하기도 한다(삼상 29장). 그런데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의 모습은 더는 것처럼 용맹스럽지 않다. 그러기에 어떤 학자들은 21:15-22는 사무엘서에 이상적으로 소개된 다윗의 이미지를 해체한다고 주장한다.²²⁾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이미지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다. 얼핏 보기에 다윗은 무력한 자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그는

22) 폴진(Polzin, *David and the Deuteronomist*, 202-207.)은 21:15-22이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신 18:21-22)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더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브루그만(Brueggemann, “2 Samuel 21-24,” 387.)은 21:15-22가 ‘이스라엘의 등불’로 표현된 다윗의 ‘높은 제왕적 자만’(the high royal pretension)을 ‘초라하게 보이는 진공 상태’(“in a vacuum where it appears ludicrous”)에 매달아 두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디트리히[W. Dietrich, *Die frühe Königszeit in Israel. 10. Jahrbundert v. Chr.*, BE 3 (Stuttgart: Kohlhammer, 1997), 83.] 또한 21:15-22이 ‘다윗 전승의 주요 부분에 대한 가벼운 비판과 교정’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등불’(נֵר לְיִשְׂרָאֵל)로 일컬어지고 있다(17절). 나아가서 다윗은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부하 장수들에게 보호받고 있는 자로 나타난다. 다윗을 지키는 이들 부하 장수들은 아람 군대들 앞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불 병거와 불 말들’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왕하 6:14-19).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문이 다윗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최후 승리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22절). 이것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장대한 자들’(גִּבּוֹרֵי הַחַיִּים)을 죽였다는 사실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본문은 왜 다윗을 보다 능동적이고 강한 자로 소개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다윗이 싸워서 승리를 거둔 모든 전쟁들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여겨진다. 즉, 본문은 다윗이 얻은 모든 승리는 그 자신의 힘과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요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강조한다.²³⁾ 이와 같이 21:15-22는 사무엘서의 말미에서 다윗과 블레셋 간의 전쟁의 특정한 측면을 포착하고 묘사하여 다윗이 싸운 모든 싸움의 본질과 성격을 밝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경우 21:15-22는 21:1-14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21:1-14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여호와의 맹세라고 하는 언약적 관점에서 조망하여 다윗 왕권이 어떻게 확립되고 견고해졌는가를 보여주는 반면, 21:15-22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 민족을 굴복시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의 맥락에서 21:15-22은 21:1-14과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8장-사무엘하 8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 8장-사무엘하 8장은 다윗과 사울 간의 관계 이외에도 다윗이

23) 이와 관련하여 스토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s wäre zu fragen, ob in der Häufung und der Anordnung dieser Stellen menschlicher Hilfslosigkeit nicht das Weiterwirken, zugleich die Vertiefung eines Motivs der Richter geschichten zu sehen ist, wonach jeweils der kleinste und unqualifizierte die Gottestaten tut,” Stoebe, *Das zweite Buch Samuelis*, 43; Cf. Gordon, *1 & 2 Samuel*, 96.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와와의 전쟁을 싸워 마침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굴복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3.2. 사무엘하 23:8-39

23:8-39도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과 그들의 용맹스런 행적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 ‘삼십인’이나 ‘삼십인’과 같은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이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나 그들이 다윗의 군대의 심장부를 이루는 용사들이었을 것이라 보면 될 것이다. 문제는 본문이 현재의 위치에서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몇몇 학자들은 본문이 다윗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⁴⁾

그러나 우리는 본문이 헛 사람 우리아의 이름과 더불어 끝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본문과 유사한 목록을 담고 있는 역대하 11장에는 우리아 다음에 16명의 이름이 더 소개되고 있다. 이로 보건대 사무엘서의 저자는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우리아의 이름으로 끝맺게 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아가 누구인가? 다윗이 왕으로서 범한 가장 악한 일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이 의도적으로 인명 목록의 끝에 배치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다윗이 범한 왕권의 남용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문학적 장치임에 분명하다.²⁵⁾

24) 브루그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In 23:8-39, David is portrayed as democratic and theonomous, and as a genuine comrade in solidarity.” Brueggemann, “2 Samuel 21-24,” 394. 사무엘하 21-24장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 브루그만과 의견을 달리하는 클레멘트도 23:8-39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Klement, 2 Samuel 21-24, 197.).

25) 칼슨은 ‘우리아’라는 이름은 23:8-39를 사무엘하 10-12장에 연결시키는 ‘연상적 기능’(the associative function)을 하여 24:1에서 ‘여호와께서 새로 진노하시는 것’(“the new outburst of the wrath of Yahweh”)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공해주

이제 23:13-17을 살펴보자. 여기에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일화가 담겨있다. 아둘람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헬과 가까운 곳이다.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베들레헬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나 아둘람과 베들레헬 사이에는 르바임 골짜기가 가로놓여 있었고 이 골짜기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었다. 따라서 베들레헬의 우물물을 길어오기 위해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야만 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하들을 향하여 “베들레헬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라며 무리한 주문을 한다. 그러자 세 용사가 다윗의 소원대로 블레셋 진영을 통과하여 베들레헬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온다.

이 일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부하들이 있었는가를 보이기 위해서인가?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맥에서 이 일화는 또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 즉, 39절에 언급된 상징적 인물 ‘우리아’와 더불어 아둘람 에피소드는 왕권이 어떻게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는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²⁶⁾ 앞에서 우리는 24장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잘못하여 70,000의 백성을 잃어버린 사건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23:8-39는 짧은 에피소드 형식의 글들과 인명 목록이라는 양식을 통하여 왕권 속에 내재하여 있는 문제점과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23:8-39은 24장과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9-20장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다윗 왕권의 위기와 그 해결). 다만 두 본문은 강조점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24장은 왕권이 남용되어

고 있다고 본다[R. A. Carlson, *David, the chosen King. A Traditio-Historical Approach to the Second Book of Samuel* (Stockholm: Almqvist & Wiksell, 1964), 225.].

26) Cf. J. J. M. Grant, “2 Samuel 23:1-7,” *Interpretation* 51 (1997), 417. “Then a story of David’s heroes tells how he has them risk their lives so that he may have a drink of water from home. Later, after the have achieved the impossible mission, he recants.”

전체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23:8-39은 왕권의 남용은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23:8-39은 전후 문맥과 분리된 글이 아니라 24장과 긴밀하게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아가서 사무엘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23:8-39은 24장과 더불어 사무엘하 9-20장의 결론부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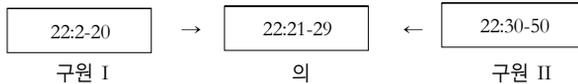
4. 시: 사무엘하 22장 대 사무엘하 23:1-7

22장과 23:1-7은 21-24장에 나타나는 대칭 구조에서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문학적 쌍’(literary pair)이다. 히브리 문학 양식에 있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대칭구조의 중심에 놓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22장과 23:1-7은 21-24장과 함께 사무엘서 전체 이해에 결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4.1. 사무엘하 22장

이 긴 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I. 표제어(1절), II. 원수로부터 구원 (2-20절), III. 다윗의 의(21-29절), IV. 적들로부터의 구원(30-50절), V. 결미(51절). 이 다섯 부분들 중 표제어(1절)와 결미(51절)를 제외한 시의 몸체 부분은 다윗의 의를 강조하는 21-29절을 축으로 다윗이 경험한 두 가지 구원 사건을 2-20절과 30-50절에서 각각 다루고 있다.

〈표 3〉 사무엘하 22장의 문학적 구성



위와 같은 문학적 구성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었기에 두 가지 큰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그렇다면 2-20절과 30-5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원의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선 2-20절에는 출애굽 당시의 신현을 연상케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강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이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시의 표제어(“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을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는 이 원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히 해준다(사울²⁷⁾). 반면 30-50절에서는 주로 다윗이 이방인들과 싸워 승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다윗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쳐서 파하고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용감한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에 걸맞게 다윗은 이 부분을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50절)는 말로 끝맺는다.

결국 22장은 다윗이 경험한 두 가지 구원의 사건, 즉 사울의 쫓박으로부터의 구원과 이방 민족들로부터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이 두 가지 구원의 사건 중심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다는 사실을 배치하여 다윗에게 주어진 구원과 승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한 것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한다.²⁸⁾ 놀라

27) 왓츠는 2-20장에 나타나는 언어적 현상들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상황들을 연상케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psalm’s language thus combines with the reference to Saul in the superscription to evoke the period of Davids flight from Saul as the experience reflected in the first part of the psalm,” J. W. Watts, *Psalm and Story. Inset Hymns in Hebrew Narrative*, JSOTS 13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08.

운 것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그와 이방 민족 사이의 문제는 21:1-14 과 21:15-22이 각각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22장이 21장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21장에서 내러티브 양식과 에피소드 양식으로 이야기된 것이 22장에서는 시적인 언어로 노래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무엘서 저자는 다양한 문학적 표현 양식을 통하여 ‘다윗 왕권의 확립과 견고화’라는 사무엘서의 한 중심 주제를 장엄하고 엄숙하게 끝맺고 있다. 특별히 22장은 다윗이 경험한 모든 구원과 승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려 이스라엘의 왕권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4.2. 사무엘하 23:1-7

이 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I. 표제어(1절 상), II. 도입부(1절 하-2절), III. 왕권의 번영과 소망(3-5절), IV. 왕권의 오용에 대한 경고(6-7절). 이러한 구성에서 알 수 있듯 이 시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번영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게 될 때 그 왕권은 시들어지고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6-7절은 사사기의 요담의 비유를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왕권의 남용을 경계하고

28) 폴진(Polzin, *David and the Deuteronomist*, 207)은 22:21-29에 그려진 다윗의 모습이 ‘왕복을 입은 반신’(a quasi-god in royal garb)과 같다고 하며 신명기 사가가 이것을 사무엘서의 말미에 둔 이유는 자신을 신격화하기에 빠른 다윗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크봐클이 옳게 지적한 것처럼 21-29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시인의 겸허한 고백이자 송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G. Kwakkel, *According to My Righteousness. Upright Behaviour as Grounds for Deliverance in Psalms 7, 17, 18, 26 and 44*, OTS 46 (Leiden: E. J. Brill, 2002), 282.].

있다(삿 9:7-15). 여기서 우리는 본문이 사무엘하 9-20장과 주제 면에서 서로 맞닿아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다른 한편 23:1-7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강조한다. 특히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과 미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왕권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왕권의 궁극적인 안전과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의 왕권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하나님 경외에서 비롯된 ‘공의’라 요약할 수 있다.

이제 23:1-7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가 보다 분명하여진 것 같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공의를 시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강조하여 23:8-39과 24장의 내용을 재현하고 있다. 즉, 23:8-39과 24장에서 리스트와 내러티브 양식으로 다루어진 내용이 23:1-7에서 시적언어로 노래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사무엘서의 중요한 한 주제인 ‘다윗 왕권의 위기와 그 해결’을 엄숙하고 장엄하게 종결짓고 있다.

끝으로 이 시의 표제와 도입부인 1-2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23:1-7이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언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다윗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선지적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23:1-7은 사무엘서에 기록된 역사를 회고, 정리하는 기능을 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견하는 예언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다윗이 ‘영원한 언약’을 언급하며 자신을 ‘메시아흐 엘로헤 야아콥’(מֶלֶךְ אֱלֹהֵי יִשְׂרָאֵל)이라 칭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²⁹⁾

29) 따라서 차일즈는 23:1-7을 다윗의 전 생애에 대한 신학적 해석으로 메시아 소망을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이스라엘의 왕권이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의 시행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찰함과 동시에 그 왕권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까지 이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다. 그러기에 23:1-7은 사무엘하 9-20장을 시적 언어로 장엄하게 마무리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서 전체를 포괄하면서 미래를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무엘하 23:1-7은 사무엘서의 신학적 정점(theological apex)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마치는 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하 21-24장은 문학적 구성뿐만 아니라 내용도 정교하게 짜진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교차 구조(c, b, a, a', b', c')의 전반부는 다윗이 어떻게 한편으로는 사울로부터 야기된 재난에서 벗어나고(21:1-14) 다른 한편으로는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이방 세력을 제압하여(21:15-22) 자신의 왕권을 굳게 세울 수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22장은 다윗의 모든 구원과 승리가 다윗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것임을 시적인 언어로 노래하고 있다.

교차 구조의 후반부에서는 왕권의 남용과 그에 따른 결과가 중심 테마를 이룬다. 24장은 다윗이 백성의 많고 적음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백성의 수효를 심각하게 감소시킨 일을 다루고 있으며, 23:8-39은 다윗이 정당하게 왕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생명이 지 위험에 빠뜨린 일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23:1-7의 배경을 이룬다. 여기서 다윗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롭게 왕권을 행사

예시하는 것("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David's whole career adumbrating the messianic hope")으로 본다. Childs, *Introduction*, 275; Cf. A. Alt,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II* (München: C. H. Beck, 1959²), 63-64.

할 때 그 나라가 ‘아침빛’처럼 찬란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모든 구원과 소망의 든든한 기초가 됨을 고백한다.

이와 같이 사무엘하 21-24장은 ‘다윗 왕권의 확립과 견고화’와 ‘다윗 왕권의 위기와 그 해결’이라는 두 주제를 교차 대칭구조라는 문학적 양식을 빌어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예의 두 주제가 사무엘서의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8장-사무엘하 8장은 사무엘 시대에 처음 제기된 왕권의 문제가 다윗 왕권의 확립과 견고화로 일단락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무엘하 9-20장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남용하여 당한 위기와 그 문제 해결을 다루고 있다.³⁰⁾ 이렇게 볼 때 사무엘하 21-24장은 결코 느슨하게 첨가된 부록이 아니다.³¹⁾ 그것은 매우 정교한 문학적 구성을 통하여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 역사의 대단원을 맺는 기능을 하고 있다.

30) 사무엘상 1-7장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나아가는 과도기를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학자들의 글을 참조하라. J. T. Willis, “An Anti-Elide Narrative Tradition from a Prophetic Circle at the Rahmah Sanctuary,” *JBL* 90 (1971), 301; J. Van Seters, *In Search of History,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the Origins of the Biblical Historiograph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346-353; I. Provan, V. P. Long and T. Longman III, *A Biblical History of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201-207. 특히 렌토르프는 삼상 1-7장이 장차 왕을 기름 부어 세울 선지자의 탄생과 성장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R. Rendtorff, “Samuel the Prophet. A Link between the period of Moses and the Kings,” C. A. Talmon & S. Talmon, eds., *The Quest for Context and Meaning*, BIS 28 (Leiden: E. J. Brill), 1997, 28.

31) 사무엘서가 이처럼 주제와 문학적 구성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기에 복잡한 전승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 힘들며, 더욱이 신명기부터 열왕기까지 하나의 역사서로 취급하는 ‘신명기 역사서’의 관점은 상당 부분 그 설득력을 잃는다 하겠다.

〈주요어〉

사무엘하 21-24장, 여호와와의 맹세, 언약 관계, 다윗 왕권의 확립,
다윗 왕권의 위기, 왕권의 남용, 공과 의

〈Key Words〉

2 Sam. 21-24, the Yahweh-Oath, covenant relationship, the
establishment of the Davidic kingship, the Crises of the Davidic
kingship, the abuse of the kingly authority, justice and righteousness.

참고문헌

- Alt, A.,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II*, München: C. H. Beck, 1959².
- Brueggemann, W., “2 Samuel 21-24. An appendix or Deconstruction?” *CBQ* 50 (1988), 383-397.
- Brueggemann, W., *First and Second Samuel*,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Bruno, A., *Gibeon*,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andlung, 1923.
- Carlson, R. A., *David, the chosen King. A Traditio-Historical Approach to the Second Book of Samuel*, Stockholm: Almqvist & Wiksell, 1964.
- Childs, B.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London: SCM Press, 1978.
- Dietrich, W., *David, Saul und die Propheten. Das Verhältnis von Religion und Politik nach den prophetischen Überlieferungen vom frühesten Königtum in Israel*, BWANT 122, Stuttgart: Kohlhammer, 1992².
- Dietrich, W., *Die frühe Königszeit in Israel. 10. Jahrhundert v. Chr.*, BE 3, Stuttgart: Kohlhammer, 1997.
- Dietrich, W., *Von David zu den Deuteronomisten. Studien zu den Geschichtsüberlieferungen des Alten Testaments*, BWANT 8, Stuttgart: Kohlhammer, 2002.
- Driver, S. 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with an Introduction on Hebrew Paleography and the Ancient Versions and Facsimiles of Inscriptions and Map*, Oxford: Wipf & Stock, 1913².
- Eißfeldt, O., *Die Komposition der Samuelbücher*, Leipzig: J. C. Hinrichs'sche Buchhandlung, 1931.
- Fensham, F. C., “The Treaty between Israel and the Gibeonites,” *BA* 27 (1964), 96-100.
- Flanagan, J. W., “Social Transformation and Ritual in 2 Samuel 6,” C. L. Meyes and M. O'Connor, eds.,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FS D. N. Freedman,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3, 361-371.
- Fokkelmann, J. P., *Narrative Arts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III, Throne*

- and City*, SSN 27, Assen: Van Gorcum, 1990.
- Frolov, S. and Orel, V., "Rizpah on the Rock, Notes on 2 Sam. 21:1-14," *BeO* 37 (1995), 145-154.
- Gordon, R. P., *1 & 2 Samu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 Goslinga, C. J., *Het Eerste Boek Samuel*, COT, Kampen: Kok, 1968.
- Grant, J. J. M., "2 Samuel 23:1-7," *Interpretation* 51 (1997), 415-418.
- Hentschel, H., "Die Samuelbücher," E. Zenger, Hg.,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KST 1,1, Stuttgart: Kohlhammer 2004⁵, 230-238.
- Hertzberg, W., *Die Samuelbücher*, ATD 1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³.
- Kaminsky, J. S., *Corporate Responsibility*, JSOTS 19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Klement, H. H., *II Samuel 21-24. Context, Structure and Meaning in the Samuel Conclusion*, EUS 682, Frankfurt a.M.: Peter Lang, 2000.
- Klostermann, A., *Die Bücher Samuelis und der Könige*, Nördlingen: C. H. Beck, 1887.
- Kuening, A., *Historisch-kritisch onderzoek naar het ontstaan en de verzameling van de boeken des ouden verbonds, Eerste deel*, Leiden: Akademische Boekhandel, 1861.
- Kwakkel, G., *According to My Righteousness. Upright Behaviour as Grounds for Deliverance in Psalms 7, 17, 18, 26 and 44*, OTS 46, Leiden: E. J. Brill, 2002.
- Malamat, A., "Doctrines of Causality in Hittite and Biblical Historiography: A Parallel," *VT* 5 (1955), 1-12.
- Neufeld, E., "The Sins of the Census," *Jud* 43 (1994), 196-204.
- Noth, M.,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e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Tübingen: Max Niemeyer, 1957².
- Polzin, R., "HWQY and Covenantal Institutions in Early Israel," *HTR* 62 (1969), 227-240.
- Polzin, R., *David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c*

- History. Part Three, 2 Samue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 Provan, I. and Long, V. P. and Longman III, T., *A Biblical History of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Rad, G. von, “Der Anfang der Geschichtsschreibung im alten Israel,” ders.,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TB 8, München: Chr. Kaiser, 1971, 148-188.
- Rendtorff, R., “Samuel the Prophet. A Link between the period of Moses and the Kings,” C. A. Talmon & S. Talmon, eds., *The Quest for Context and Meaning*, BIS 28, Leiden: E. J. Brill, 1997, 27-36.
- Richardson, H. N., “The Last Words of David. Some Notes on II Samuel 23:1-7,” *JBL* 90 (1971), 257-266.
- Rost, L., *Die Überlieferung von der Thronfolge Davids*, Stuttgart: Kohlhammer, 1926.
- Schenker, A., *Der Mächtige im Schmelzofen des Mitleids. Eine Interpretation von 2 Sam 24*,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1982.
- Stoebe, H. J., *Das zweite Buch Samuelis*, KAT 8/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4.
- Toorn, K. van der, *Family Religion in Babylonia, Syria and Israel.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Forms of Religious Life*, SHCANE 7, Leiden: E. J. Brill, 1996.
- Van Seters, J., *In Search of History,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the Origins of the Biblical Historiograph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 Wacker, M.-T., “Rizpa oder. Durch Trauer-Arbeit zur Verzöhnung. Anmerkung zu 2 Sam 21,1-14,” K. Kieskow & T. Meurerer, Hg., *Textarbeit. Studien zu Texten und ihrer Rezeption aus dem Alten Testament und der Umwelt Israels*, Fs. P. Weimar, AOAT 29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3, 545-567.
- Walters, S. D., “Reading Samuel to Hear God,” *CTJ* (2002), 62-81.

Watts, J. W., Psalm and Story. *Inset Hymns in Hebrew Narrative*, JSOTS 13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Willis, J. T., "An Anti-Elide Narrative Tradition from a Prophetic Circle at the Rahmah Sanctuary," *JBL* 90 (1971), 288-308.

<초록>

사무엘하 21-24장의 위치와 기능

김진수

(백석대학교 교수, 구약학)

사무엘하 21-24장에 있는 문학적 단편들은 여러 가지로 이해되었다. 이들 단편들이 사무엘서에서 갖는 위치와 기능에 대해 학자들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 문예 비평가들과 같이 필자는 그것들이 사무엘서의 결론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특히 21-24장은 자료들을 교차대조 형태로 제시하여 이스라엘에서의 왕권의 문제를 다룬다. 다윗 왕권의 성립과 견고화(21:1-22:51) 대 다윗 왕권의 위기와 그 해결(23:1-24:25). 사실상 이 두 주제는 사무엘서를 구성하는 두 개의 큰 문헌 복합체인 사무엘상 8장-사무엘하 8장과 사무엘하 9-20장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와 매우 유사하다.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은 사무엘서를 아우르는 두 주제인 ‘다윗 왕권의 확립과 견고화’와 ‘다윗 왕권의 위기와 그 해결’이 사무엘하 21-24장에서 재현되어 전체 책을 최종 결론으로 이끌고 있다.

<Abstract>

The Place and Function of 2 Samuel 21-24

Dr. Jin-Soo Kim
(Baekseok Univ.)

The literary units in 2 Sam. 21-24 have been understood in various ways. In the academic world there is no consensus as to the place and function of these highly enigmatic literary pieces in the Samuel corpus. In agreement with the modern literary critics the writer thinks that they constitute the proper conclusion to the Samuel books. Particularly, it is argued that chs.21-24 deals with the problem of kingship in Israel by way of presenting the materials in chiasmatic contrast: the establishment and consolidation of the Davidic kingship(21:1-22:51) vs. the crises of the Davidic kingship and their resolution(23:1-24:25). In fact, these two themes are very similar to those being dealt with in the two large literary complexes forming the whole Samuel books, i.e., 1 Sam.8-2 Sam. 8 and 2 Sam.9-20. From this it becomes clear that those two themes overarching the Samuel corpus are repeated in 2 Sam.21-24 in such a way to bring the whole books of Samuel to the final conclusion.